

젖소의 발굽관리로 생산성을 향상시키자

차 건 섭

평택 믿음동물병원장, 수의사

최근들어 생산성의 향상은 모든분야의 생사가 달려 있는 절실한 과제라는 것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이를 위하여 끊임없는 젖소개량, 시설개선, 기술개발 등 각분야에서의 노력과 투자는 그야말로 전쟁을 방불케하는 느낌이 들게하고 있다.

그래서 필자는 발굽삭제와 발굽질병을 치료하는 임상수의사로서 현장의 경험을 토대로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 발굽의 각질이 잘자라는 젖소는 년중 계획을 세워 삭제를 정기적으로 하자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장기적인 시설개선이나 새로운 기술의 활용등은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나 상식적으로도 당장 해야하는 그리고 할 수 있는 작업을 적절한 시기와 방법으로 했을때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중요한 분야가 발굽삭제라고 생각된다. 대부분의 낙농가들은 이론적으로 발굽삭제가 젖소의 유량증가와 건강유지에 밀접한 관계에 있음을 너무 잘 알고 있으며 또한 실제로 발굽삭제를 해보면 유량이 1~2kg 증가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 그러나 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큰일

즉 시설개선, 신기술활용등에 골몰하게 되어 정작 조금만 신경을 쓰면 효과를 볼 수 있는 발굽삭제는 별것이 아닌것으로 취급하여 결국은 보행장애와 발굽질병의 발생으로 인한 유량감소, 질병에 대한 저항력 저하, 경제수명의 단축등 상당한 손실을 초래하는 실수를 할때 실로 안타까운 느낌을 떨쳐버릴수가 없다.

그러면 발굽삭제를 어떠한 체계로 해야 하는지 알아 보도록 하자.

① 젖소개체에 따른 발굽상태를 파악한 후 기록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젖소의 발굽은 개체에 따라 빨리 자라는 개체가 있는가하면 늦게 자라는 개체가 있으며 또한 자라는 형태가 보행에 영향을 빨리주는 것과 영향을 서서히 주는 것이 있다. 그리고 동일한 젖소개체의 발굽중에서도 성장속도와 형태에 차이가 있으므로 빠짐없이 파악하여 기록한 후 합리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다시 말하면 발굽삭제는 발굽의 성장속도와 형태에 따라 3개월마다 삭제해 주어야 할 개체가 있는가 하면 1년에 또는 2년에 한번씩 해도 문제가 없는 개체가 있으므로 현황을 파악한후 계획을 세워 적기에 실시하여야 한다.

“발굽삭제를 늦추는 것은 병에 걸린 소를 치료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하겠다.”

② 발굽삭제는 충분한 실습교육을 받은 연후에 실시해야 하며 그렇지 못할시는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젓소관리중 발굽삭제는 특별한 경험과 기술이 없어도 누구나 할 수 있는 쉬운 작업이라고 생각되어지는 분야인것 같으나 실제로 경험해보면 힘들고 위험하며 잘못삭제 했을시 그 후유증이 많은 중요한 분야란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삭제경험이 없거나 또는 시간이 없어서 직접삭제를 못하는 목장에서는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삭제를 직접 실시하는 경우에도 많은 경험과 전문기술이 요구되는 기형발굽은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삭제시 자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능하면 발굽관리 분야도 전문가와 연간계약을 체결하여 실시하면 삭제시기를 놓치지 않고 발굽문제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다.

둘째 : 발굽질병의 조기발견과 적절한 치료를 실시하자.

모든 질병이 그렇듯이 조기발견과 조기치료는 발굽질병에서도 필수적이다. 이는 특히 운동장의 환경이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더욱 중요한것인데 예를들면 물기가 있다든지 또는 딱딱한 바닥에서는 염증이 급속히 파급되며 보행시 통증이 대단히 심하여 치료시기를 늦출 경우 상당한 손실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또한 발굽질병의 종류에 따라서도 나타나는 증세와 질병의 예후가 상식적인 예측과 다른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백선부제라고 부르는 바닥의 화농은 갑자기 심하게 절었다가 화농부위가 터지면 통증이 완화되면서 운동장 상태가 건조하고 폭신폭신한 경우 자연적으로 치유되는 질병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부제병이라 부르는 제저부란은 절다가 괜찮아 보이다가 하면서 만성증세로 경과되어 방치할 경우 우유생산을 지속적으로 저하시키며 번식장애 사료효율 감소, 질병에 대한 저항력저하등 많은 손실을 초래하는 질병도 있다. 그러므로 최고의 생산성을 유지하기 위하여서는 질병의 조기발견과 조기치료가 중요하다.



셋째 : 발굽과 운동장과의 상관관계를 잘 파악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발굽문제는 젓소의 유전적 요인과 사양관리 및 환경적인 영향으로 나눌 수 있으나 제일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역시 운동장 상태이다. 이는 운동장상태가 목장의 성패를 좌우하는 요인중 하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바람직한 운동장은 적절한 습도와 적절한 굽손이 유지되는 초지와 같은 상태인데 이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목장의 여건상 최선이라고 생각되는 시설을 활용하고 있으나, 중요한 것은 어떤여건에서든지 발굽문제가 발생하면 전문수의사에게 의뢰하여 발생된 문제만 해결할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발생시킨 원인을 찾아내어 조속히 개선하여야 한다. 필자의 경험에 의하면 몇몇 목장에서는 원인제거가 가능한데도 늦추거나 소홀히 하여 손실을 크게입는 실정을 보며 답답한 느낌이 들때가 있었다.

넷째 : 발굽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쉬우며 그리고 가능한 방법을 즉시 활용하자.

발굽질병의 대부분은 유산동 육조의 사용이나 또는 소석회를 운동장이나 통로에 살포해놓으면 예방할 수 있다. 즉 유산동액을 5~10%로 만들어 출입구에 발굽육조를 사용하거나 또는 운동장이나 착유장과 운동장사이 통로에 소석회(생석회는 피부를 상하게 하므로 절대로 사용해서는 않됨)를 살포하면 상당한 효과가 있어 발굽 질병발생으로 인한 손실을 예방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은 계속 실시하면 더없이 효과적이는데 때로는 귀찮고 소홀해지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때는

발급질병 발생이 많은 여름철만이라도 꼭 실시하기를 바란다. 효과있고 쉬운방법은 소홀히하고 비싸고 어려운 방법을 사용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한다.

다섯째 : 잘못된 선입관을 버리자.

진료를 하려 다니다 보면 주위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소문을 듣고 질병을 악화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들면 발급질병을 치료할때 젓소를 보정하는 것이 유산을 일으킨다고 잘못알고는 임신중에 발생한 질병을 근본적으로 치료하지 않고 설파제주사등 증세에 따른 주사만 하다가 분만하고 난후 왕진요청을 하는 경우이다. 이런경우 대부분이 만성으로 진행되어 치유기간이 오래걸리거나 또는 치료해도 경제적 가치가 없어 도태되는 경우도 있다. 실제로는 임신후반기에 발급질병이 많이 발생되며 이때 치료하는 경우가 많으며, 특별한 상태가 아닌경우 보정으로 인산 유산은 발생되지 않는다.

또 다른에는 부제병은 연탄짚계를 달구어서 지지면 괜찮다는 소문에 상처부위를 지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생살을 굽는것과 마찬가지로 상처주위 조직의 괴사(썩는것)를 일으켜 치료시 회복이 느리게 되거나 심하게 지질경우 치료가 불가능하게 되어 도태된다. 기술이 급속하게 발전되고 있는 요즘세상에서 소문에만 의존하면 그만큼 뒤떨어질 수밖에 없으므로 모든 문제는 각각의 해당분야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이는 최선의 경영이라 하겠다.

결론적으로 발급치료와 발급삭제에 관한 이론들은 각종 간행물에 많이 게재되어 참고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참고할 수 있으므로 필자는 목장에서 진료하는 임상수의사로서 보고느껴 꼭 말하고 싶던사항을 적었다. 아무쪼록 알고있는 정보와 기술을 현장에 적절한 시기와 적절한 방법으로 활용하여 목장의 생산성을 최대치로 향상시키기를 희망한다.

다음에는 목장에서 발생하는 제염염에 대하여 그 원인과 치료방법을 게재코자 한다.

라이그라스 짚 (RYE GRASS STROW) 공급

협회에서는 금년 6월부터 화본과 라이그라스 짚(RYE GRASS STROW)을 공급합니다.

라이그라스 짚의 특성

- 가) 벧짚에 비하여 줄기가 부드럽고 연하며, 품질이 좋아 기호성이 우수합니다.
- 나) 유효섬유질이 뛰어나며 두과 목초의 단점을 보완해줌으로 고능력우 사양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 다) 베일(BALE) 형태로 공급합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본협회 알선사업부(02-588-7055)로 문의 바랍니다.

사단법인 한국낙농육우협회